

중국 연변 거주 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주제 및 상징연구
*Symbols and Themes in Sandplay Therapy for
Korean-Chinese Adolescent from Broken Families in China*

이 여 름*
Yeo Reum Lee

손 춘 옥**
Chun Yu 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themes and symbols expressed in sandplay therapy by Korean-Chinese adolescents from broken families in China.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Korean-Chinese residents of Yanbian Prefecture in northeastern Chin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dolescents in broken families who did not live with their mother, father, or both parents for various reasons. Sandplay therapy consisted of eight sessions over one month. The subjects underwent 45 minutes of therapy in each session. With the agreement of the subjects and their guardians,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was photographed. Meaningful contents were noted in the sand scenes and abstract research themes were narrowed down. As a result, the observed contents were materialized and the common themes found in adolescents were categorized. To ensure the validity of this study, triangulation and peer debriefing were applied. A case-by-case analysis procedure was adopte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four common themes expressed, namely a 'sense of distance', 'wounded', 'hope', and 'newness'. This study afforded insights into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from broken families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for understanding and healing themselves.

Keywords : Korean-Chinese adolescents, broken families, sandplay therapy, symbols and themes

* 아름아동청소년상담센터 놀이치료사 (dufma91@naver.com)

**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청소년 심리 자문중심 상담사 (qks333@hanmail.net)

I. 서 론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그들의 후예로 구성된 중국의 소수민족일원으로(황유복, 2013)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약 2백만 명이다(정다운, 2016). 반면, 국내에 2015년 7월까지 1,801,401명의 체류외국인 중 조선족이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즉, 중국 거주 조선족의 25%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제 자유 개방·개혁 정책 추진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족이 중국의 대도시 혹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조선족 사회에는 양친 또는 부친이나 모친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구조적 결손가정이 늘고 있다. 연변 자치주에 남겨진 자녀들 중 부모 모두가 한 쪽 부모와도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수도 약 3만 명으로 조선족 자치주 전체 학생의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리화, 2014). 부모와 같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이미 우리사회 다문화 가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적 가정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와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해외 취업으로 부모 둘 다,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거주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그들이 조선족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천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자녀들은 상이한 거시체계 환경의 다양한 요구들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조복희 외, 2005).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한 애착형성은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른 성공적 과업 수행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한 개인의 성인기 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확장 될 수 있다(허미정, 2014). 또한 주기분리 경험으로 인한 외상경험과 청소년기 주양육자의 부재는 발달적으로 환경에 민감하고 아직 신체·인지 및 성격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의 이후 성인기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선족 청소년들은 심리사회 문제로 발전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밖에 지나친 점수 추구로 학생들의 정신부담이 과중되어 있고 이혼율 상승과 부모출국가정의 증가,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부재 등 수많은 외적요인들이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허철수, 2002). 또한 중국의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부족하고, 보호자들이 자녀의 정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향적, 피벽, 소심함, 감정에 취약함, 강한 반항심,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충동적, 신경증, 학업성적 부진, 이상한 버릇 및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고 있다(임설매, 2013).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과 정서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록 돕기 위해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필요하다. 모래를 이용한 모래놀이치료는 정해진 규격의 모래상자에서 모래,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을 사용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자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담자의 경험세계와 내면세계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가 치유하는 자기치료 기법이다(김근란, 2012). 내담자와 치료자사이의 연결은 치료자가 상징들의 의미에 조율할 수 있을 때 모-자 단일체를 재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치유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치유력은 치료자가 모래장면과 내담자에게서 통찰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 때조차 생겨날 수 있다(장미경, 2017). 모래놀이치료는 언어로만 진행되는 상담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적·문화적 한계가 있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특징에 적합한 치료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특성으로 감정표현이나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놀이를 통해 상징적인 생각과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피겨에 자신을 투사해 감정을 표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표현한 모래장면에서 나타난 이미지와 주제는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모래놀이의 내용 주제를 검토하는 것은 모래놀이 과정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여 모래상자에서 표현되는 내담자의 작업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담아두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Babara, 2005).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래놀이치료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조선족 거주지역인 연변에 거주하고 있다. 연변 지역의 소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 중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22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사전면접을 포함한 총 8회기로 진행되었다. 사전면담은 각 연구대상자별 개인사탐색을 위해 보호자와의 면담시간을 포함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회기 동안은 내담자 1명과 치료자 1명으로 진행되었다. 치료자는 본 연구의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는 Dora Kalf의 접근 방식으로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비지시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3명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모집된 아동 및 청소년 중 본 연구에 제시된 3명의 청소년들은 현재 결혼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다양한 원인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이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상담이 시작되기 전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적 표현 및 비언어적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보호자 및 연구참여자 본인에게 녹음 및 녹화, 기록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학년)	부모 부재상황
청소년 A	여	15(중2)	부 부재
청소년 B	여	15(중2)	부 부재
청소년 C	남	15(중2)	양쪽 부재

2. 자료제시

모래놀이치료 회기 시작 전 청소년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의 배경정보, 주호소 등의 개인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회기 시작 후에는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모래장면에 대한 설명을 연구자가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과 그들의 모래장면을 수집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을 메모하고 추상적이었던 연구 주제를 깔대기 모양으로 좁혀가며 관찰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Bogdan & Biklen, 2006). 모래장면의 해석은 모래놀이치료에서 청소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다양한 상징물 및 피겨를 관찰하여 Jung의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에서 사용하는 상징 해석의 방법으로 표현된 이미지와 청소년의 배경정보, 주호소, 꿈 등의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면서 모래장면을 분석하였다(이세화 · Prakash, 2016).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과정 중 아동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를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검수(peer debriefing)를 사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며 동료검수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가소만, 2016). 본 연구에서는 면담, 관찰, 사진 및 문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3인의 동료 모래놀이치료사의 검수 및 슈퍼비전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수정 · 보완하였다.

Ⅲ. 모래놀이치료 과정 및 분석

1. 사례별 분석 과정

1) 청소년A의 사례

청소년A는 15세로 여학생으로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이다. 현재 자영업을 하는 어머니와 쌍둥이 동생과 살고 있다. 청소년A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 후 출산을 위해 어머니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청소년A와 쌍둥이 동생을 낳았다. 어머니는 쌍둥이 중 청소년A를 고모에게 맡긴 후 일본으로 나갔다. 4세 때는 어머니가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고 6세 때, 일하러간 아빠와 연락이 두절되며 자연스럽게 이혼절차를 밟았으며 이혼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처음 청소년A는 어머니를 닳설어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A는 현재까지 아버지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청소년A의 모래장면에서는 거리감, 상처입음, 희망이 표현되었다.



그림 1. 청소년A의 3회기 모래장면

그림 1.은 청소년A의 3회기 모래장면이다. 모래상자의 왼쪽은 어머니와 명절에 자신의 집에 놀러온 조부이며 오른쪽은 자신과 동생이라고 하였다. 명절이라는 말과 다르게 집 안에서도 가족은 모두 모여 같이 있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A가 가족과 느끼는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항상 같이 있는 쌍둥이와 다르게 명절에만 만나는 조부와 바쁜 어머니는 청소년A에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있다.

이는 청소년A의 6회기 그림 2.에서도 나타났다. 마을 회장의 가족이 시어머니를 보기 위해 놀러왔지만 바쁜 시어머니는 일하느라 같이 있지 못하고 가족끼리만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연못을 구경하고 있다.



그림 2. 청소년A의 6회기 모래장면

그림 3.은 청소년A의 5회기 모래장면으로 고아원이라고 설명하다가 어린이집이라며 설명을 바꾸었다.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와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로 부모에게 상처 입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A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장기간 맡아주는 어린이집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는 청소년A의 어린 시절 부모와 전혀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다가 어머니가 중국으로 들어온 후는 가끔 만났던 것과 매우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당시 청소년A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마음이 어땠는지 그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청소년A의 5회기 모래장면

“이거는 고아원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은 아이를 맡기러 왔고, 이 사람은 동생을 찾으려고 왔어요. ... 아, 아니다 그, 한국에서 아이 잠깐 맡기는.. 어린이집이예요. 근데 장기간 맡길 수 있어요.” - 청소년A, 5회기

청소년A의 모래장면인 그림 4와 치료사 방향인 그림 5는 희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A의 1회기 모래장면인 그림 4를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캐리어를 끄는 여자와 비행기는 자신도 비행기를 타고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림 5를 보면, 청소년A의 3회기 모래장면에서 치료사 방향으로 꽃이 있다. 청소년A는 이것이 조화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런 꽃을 집에 두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집에 이렇게 생긴 꽃을 많이 놓았다고 하였다.



그림 4. 청소년A 1회기 모래장면



그림 5. 청소년A 3회기 치료사방향 모래장면

3. 청소년B의 사례

청소년B는 청소년A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15세로 중학교에 재학중이다. 청소년B 또한 6세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그전에 청소년B는 조모에게 맡겨졌다가 11개월 이후에는 고모에게 맡겨져 청소년A와 함께 자라왔으며, 어머니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고모가 편애하여 청소년A 보다 덜 예뻐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다시 만난 후에 청소년B는 낮설어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잘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살면서 청소년A와 다르게 청소년B는 어머니에게 잘 이야기 하지 않고, 언니에 비해 친하지 않다고 하였다. 청소년B의 모래장면에서는 거리감, 새로움, 희망이 표현되었다.

청소년B의 2회기 모래장면인 그림 6.은 학교에서 캠프장으로 놀러갔던 기억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즐거운 곳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반대로 모래장면에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은 쓸쓸한 장면이었다. 치료사가 청소년B에게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자 집(왼쪽 상단)에 들어가자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앞에 있는 강아지가 자신의 집이 밑에 있지만 자신도 먹을 만한 음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 쳐다보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B의 가족에 대한 거리감을 연상케 한다. 거리감은 가족과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에서의 거리감도 나타났다. 공원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다고 하는 4회기 모래장면인 그림 7.에서는 친구들과 놀고 있지만 모두 같이 놀기보다는 공으로 거리감을 두며 따로 놀고 있다.



그림 6. 청소년B 2회기 모래장면



그림 7. 청소년B 4회기 모래장면

모험은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청소년B 3회기로 귀신굴(귀신의 집)이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여자아이가 귀신의 굴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자아이는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가 보려고 한다고 언급하였다. 새로움은 궁금증과 두려움, 그에 따른 도전정신을 동반한다. 두려움과 궁금증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청소년B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는 7회기 모래장면으로 새로운 만남에 대해 축하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지금 여기서는 코스프레파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처음 만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청소년B, 2회기



그림 8. 청소년B 3회기 모래상자



그림 9. 청소년B 7회기 모래상자

청소년B는 그림 10.의 1회기 모래장면과 그림 11.의 6회기에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였다. 그림 10.에서는 에펠탑, 피라미드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보며 진짜 에펠탑과 피라미드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림 11.에서는 친구와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바로 옆집이 친구 집이어서 원할 때마다 놀러갈 수 있고 어머니 없이 친구와 모래장면 같은 곳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그림 10. 청소년B 1회기 모래장면



그림 11. 청소년B 6회기 모래장면

4. 청소년C의 사례

청소년C는 중학교 재학중인 남학생이다. 현재 누나, 조모, 사촌형 두 명, 사촌 누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나들과 작은 사촌형과는 잘 지내지만 큰 사촌형은 무서워한다고 보고 하였다. 조모와 자주 다투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부모와는 둘 지난 후 같이 살지 않고 있으며 가끔 만나는 어머니와는 어색한 사이라고 한다.

아버지와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소학교 6학년 이후 화와 짜증이 많이 늘었고 최근에는 그냥 모든 것에 짜증과 화를 낸다고 한다. 청소년C 모래장면에서는 거리감, 상처입음, 희망이 표현되었다.

그림 12.는 청소년C의 3회기 모래장면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노부와 그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오른 쪽에 있는 강아지는 농장을 나왔지만 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농장과 강아지의 거리감으로 자신과 현재 가족과의 거리감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회기 모래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을 통해 자신은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여기 이 집들은 부자 집이에요. 모든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에서는 부자 집 동네로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 동네 사람들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청소년C, 1회기



그림 12. 청소년C 3회기 모래상자

그림 13.의 상처입은 강아지와 그림 14. 6회기 모래장면에서의 환자를 통해 상처입은 자신의 마음을 투사하였다. 강아지는 농장을 지키려다 다쳤으나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지우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환자는 유적과 유물을 찾으려다 다치고 그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고도 또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유적과 유물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환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C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다치고 상처입은 자신의 내면을 치료해주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 13. 청소년C 3회기 모래상자(확대)



그림 14. 청소년C 6회기 모래상자

청소년C의 희망은 그림 15. 4회기 모래장면 에펠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표현되었다. 인젠가는 에펠탑을 보러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모래장면에서 나타난 도시의 모습처럼 현재 살고 있는 이 곳이 아닌 더 큰 도시로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청소년C에게 희망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시작은 현재 답답하고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 청소년C 4회기 모래상자

2. 분석 결과

중국 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주제는 다음 네 가지로 범주화 된다.

1) 거리감

어린 시절 부터 이어온 부모와의 분리경험은 이들에게 가족과의 거리감을 겪게 하였다.

생애초기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낸 생활은 아동기에 다시 부모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웠다. 가족 간의 거리감은 아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좁힐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과의 거리감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 등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이러한 주제는 모래 장면에서의 물리적 거리감과 상황적 거리감, 울타리 등으로 표현되었다.

2) 상처입음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그로인한 환경의 변화, 타인의 시선과 차별은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 남아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외상 경험은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어 성인기에 이르러 2차적 후유증을 가져 올 수 있다(이세화, 2016). 이번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처를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상처입음은 강아지, 환자, 버림받음 등으로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상처입음'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3) 희망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내적동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적상황 뿐만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무의식적 작업은 자신이 몰랐던 바람과 욕구를 알아차리게 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 장면에서 비행기, 에펠탑, 피라미드 등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희망이 표현되었다.

4) 새로움

새로움은 끝과 그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심리 발달적 특성상 아동기의 끝이며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가족보다 또래 및 사회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새로 발견하고 자아발달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IV. 결 론

7회기의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거나, 목소리도 작고, 다리를 떠는 불안한 행동을 보였으나 자유롭고 편

안한 치료실 안에서 회기가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표현, 모래상자를 만드는 데에 있어 적극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에서는 ‘거리감’, ‘상처입음’, ‘희망’ 그리고 ‘새로움’ 총 네 가지의 공통된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생애초기 이후 부모와 분리되며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가 중국 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난 주제를 범주화했다는 것과 그들에게는 상징으로 표현하는 심리치료적 접근 방식인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며,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방식에 대한 파악은 추후 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청소년 3명의 자료로 중국 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결손가정의 유형과 그 후 다른 양육자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참고문헌

- 가소만 (2016). **중국 한 농촌 마을 ‘유수아동’의 생활세계에 대한 교육적 의미 이해**. 2016 한국교육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근란 (2012). 구조화된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지각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리화 (2014). 초국가적 자녀 양육으로 보는 조선족 가족의 문화적 지속성과 변용. *중앙시론*, 39, 77-109.
- 임설매 (2013).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화 · Prakash Shahi (2016). 모래놀이치료에 표현된 네팔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의 지진경험 이미지.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7(1), 81-96.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 정다운 (2016). 모래놀이치료가 조기분리를 경험한 중국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 이주연 (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

- 지, 25(4), 231-245.
- 허미정 (2014). 애착외상으로 인한 정서조절 문제를 가진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5(2), 57-76.
- 허철수 (2002).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징과 상담의 과제. 한국청소년 연구, 13(2).
- 황유복 (2013). '조선족'은 누구인가? - 조선족의 정의 및 개관. 한중미래연구, 1, 11-128.
- Turner, B. A. (2009).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학지사
- Bogdan, R. C., & Bik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in (validation) and qualitative (inquiry) studies. In *It is a method-appropriate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Allyn & Bacon.

투고일 : 2017. 04. 30
수정일 : 2017. 06. 06
게재확정일 : 2017. 06. 10